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월간소식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708호

Homepage. www.kncc.or.kr

Tel. 070-7707-8431 Fax. 02-745-0156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0-127460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

통권4호
2013년
10월호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인권센터 소장 추석 맞아 쌍용자동차 단식농성장 방문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 하지만 그러한 연휴에도 고향 방문은 고사하고 곡을 끊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온 사회가 긴 연휴를 준비하던 지난 9월 16일, 그들의 아픈 상황을 위로하고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와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 김경호 목사, 박승렬 목사가 쌍용자동차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였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집단 단식은 이 날로 7일차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교회가 이 땅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더욱 더 기도하여 주기를 부탁했다.

2. 일명 '내란예비음모'사건 구속자 가족 인권침해 피해 사례 증언

지난 9월 26일(목) 오전 11시, 인권목회자동지회 9월 월례모임에 통합진보당 '내란예비음모사건'의 구속자 가족들이 참여하였다. 인권센터 운영이사회에서 구성된 '내란예비음모사건 인권침해사례 진상조사단'에서 주관한 이번 모임은 9월 17일, 임광빈 목사(인권센터 '내란예비음모사건' 진상조사단장)와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사건 대책위 관계자들의 면담 이후 한국교회에 침해 사례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그들은 일명 '내란예비음모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국가권력으로부터 행해진 인권침해 사례를 다소 담담하게 증언하였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행해진 인권침해사례를 이야기 할 때 예는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들의 피해사례 발표가 끝난 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란음모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이해동 목사는 "인권센터와 인권목회자동지회가 지금 이 사건의 법적인 결과를 떠나 가족들의 인권침해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 기도회, 피해증언사례 발표대회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 센터 경과 보고

1.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면담

일시 : 2013년 9월 6일(금) 오후 4시

장소 : 통합진보당 당사

참석 : 정진우 소장, 박승렬 이사, 박정범 간사

내용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정당 관계자 여론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공유

2. 인권센터 운영이사회

일시 : 2013년 9월 12일(목) 오후 4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

내용 : 1) 재정확충을 위하여 이사 1인 후원회원 5인 모집 /

감리교(허원배 목사), 기장(정진우 목사), 예장(임광빈/김일재 목사) 가 담당하여 후원교회 각 10교회씩 섭외키로 하다.

2) 2014년 1월, 인권캠프를 준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을 이사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하다.

3) 통합진보당 내란예비음모사건으로 인한 인권센터 조사단을 조직하기로 하고 조사단장에 임광빈 목사를 선임하다.

4) 박정범 간사를 기관목사로 청빙하기로 하다.

3. 검찰의 '조직없는 내란음모' 중간수사결과 발표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9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4.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정수 지부장 특별 면회

일시 : 2013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 구치소

면회자 : 김영주 총무, 정진우 소장, 김성복 목사, 김창현 목사, 김정순 부지부장



인권 소식

1.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의혹사건 관계자 가족 인권침해사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8월 28일, '내란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석기 의원 외 3명의 관계자를 구속 조치하였다. 하지만 국정원의 이후 수사 진행 과정은 죄를 입증할 녹취록의 정밀 분석이나 내란음모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한 갖가지 의혹들을 연일 쏟아내며,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국가기관에 대한 개인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당 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를 통해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단지 당사자들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의 인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의 신상과 초상권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영장내용을 공포하여 가족들을 지역주민들에게서 고립시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가족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간첩으로 몰리고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내란예비음모의혹사건'이 '내란죄'로 판결될 지에 대해서는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법의 판결 전에 이미 진보당 관계자 및 가족들은 이 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혀 버린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2. 고용노동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범외노조화 최후통첩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한 달 내 해직자 조합원을 인정하는 규약을 없애지 않으면 범외노조로 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보에 전교조는 24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내왔다"며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교조 규약 부칙의 제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현직 교원만 조합

원이 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자 비율이 0.02%에 불과한데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 최소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고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 국제인권법상 통신감시 13개 원칙 발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전 세계 인터넷 환경에 대한 감시방법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60여개의 정보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법상 통신감시 13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제24차 UN인권이사회 부속 행사에서 나비 필레이 UN고등인권판무관, 프랭크 라 튀 UN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된다.

이 원칙들은 통신법령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1년여 간의 논의를 통해 세계의 최고법원 판례들과 입법례들로부터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원리들을 추출해 작성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통신서비스이용자 신원정보를 국가기관이 취득하는 것도 역시 통신감시의 일환으로 인정돼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영장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진다. 또한, 국외 통신에 대한 감시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끝으로 통신감시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최소한 감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보취득에 대해 통보를 해줘야 한다. 이메일 압수수색 등에 대해 재판회부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통보를 해주는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예정이다.

4. 인권 단신

1.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 기념행사(2013. 9. 28. / 대한문 앞 /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2. 어린이 인권캠프 “친구야, 인권캠프 가자!” (2013. 9. 28. / 도봉숲속마을 / 주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3. 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기소명령(이례적 제정신청 인용결정)
4. 대만 타이베이 여성구호재단 위안부 다큐멘터리 ‘갈대의 노래’ 제작 및 상영
5.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34개 인권, 시민단체들 “국정원 주도 공포·협오 정치 중단, 사상과 양심의 자유 확대 촉구” 기자회견 하다.(2013. 9. 30.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6. 한전,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주민들과 충돌 부상자 속출
7. 국가인권위,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 ‘인권지킴이’ 파송(2013. 10. 1. / 조사관 10명 파견)
8. 보건복지부 전국 247개 자활센터 직원과 주민 4만여명의 정당활동 조사 방침 공문 발송(2013. 10. 1.)

5. 이 달의 기도

- +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을 위하여
- + 굶주리는 이웃을 위하여
- + 우리 센터의 후원회원, 기드온 300용사 모집을 위하여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김경호 김미선 김민지 김상례 김숙자 김충구 김홍선 나핵집 남윤삼 남재영 박선희 박정범 박찬석 박화원 배유미
백남운 안지호 이명남 이영우 이정미 이정연 이훈삼 인금란 임수정 전광남 정명기 정인숙 정진우 조현순 최규삼
최만석 한 별 한 빛 한인철 허원배 황명숙

일명 내란예비음모사건 관련 인권피해자를 위한

목요기도회에 초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 오셨습니다.
꿰이고 밟혀서 일어서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013년

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미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에 눈 감고, 귀 닫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절규에 응답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회개한다
그들이
위조된
반대를
받는다
것이다

마태 5, 4

함께 참여하여 이 땅위에 인권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오후 4시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

(지하철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대학로 방향 100m)

현장의 증언 : 내란예비음모사건 관련 인권피해자

하늘의 증언 : 송병구 목사 (색동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